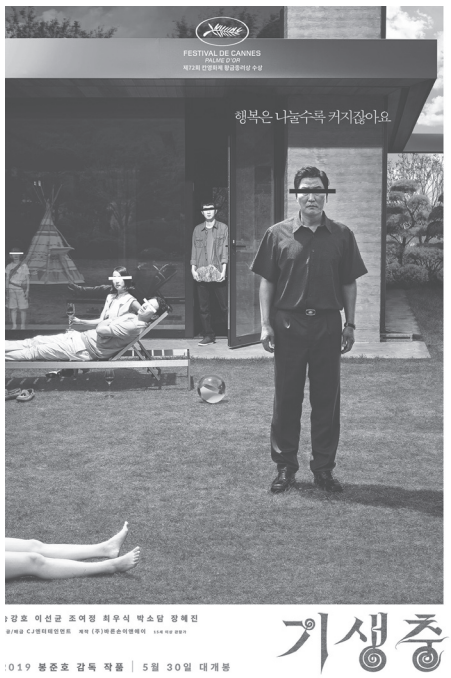
‘기생충’ 미국 개봉…아카데미 수상할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선 개봉해 좋은 반응을 거두면서 아카데미 수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 11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선 개봉했다. 선 개봉부터 뉴욕 극장에서는 표가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언론들도 호평을 내놨다.

뉴요커는 “봉준호 감독은 ‘숨김’의 대가이다. 봉 감독에 의해 그려진 불평등한 세상은 계급 투쟁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중재된 평화로 이어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보길” 이라고 관람을 독려했다.

LA타임스는 “ ‘기생충’은 유쾌함으로 시작해 파괴로 끝난다. 그러나 이 영화의 업적은 관객이 숨을 내쉬기 힘들 수도 있을 만큼 매 순간 살아있고 숨 쉰다는 것이다.” 고 극찬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기생충’은 선 개봉일 하루에만 12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포브스는 “이번 주말에만 34만8천 달러, 극장당 11만 6천290달러를 벌어들이면 올해 미국 극장당 오프닝 수입 중 최고 기록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기생충’이 화제가 되면서 영화의 흥행이 내년 2월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오스카)시상식에서의 수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거리고 있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최우식은 ‘기생충’의 북미 개봉과 콜로라도 텔루라이드 영화제,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텍사스의 판타스틱 페스트, 뉴욕영화제 등에 참석하기 위해 몇개월째 북미에 머무르고 있다.

S.E.S. 바다, 3년 만에 솔로 컴백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바다(본명 최성희·39)가 3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다.

15일 소속사 웨이브나인은 바다가 오는 24일 신곡 ‘오프 더 레코드’ (Off The Record)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6년 발표한 ‘썸머 타임’ (Summer Time) 이후 3년 만의 솔로곡으로 바다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

바다가 리드보컬로 활동한 걸그룹 S.E.S.는 1997년 ‘아임 유어 걸’ (I’ m Your Girl)로 데뷔했다. 이후 ‘너를 사랑해’, ‘꿈을 모아서’, ‘드림스 컴 트루’ (Dreams Come True)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독보적인 1세대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바다는 2003년 S.E.S.가 해체한 이후에도 꾸준히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카르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뮤지컬 배우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S.E.S.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인 ‘리멤버’ (Remember)를 발매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닥터 두리틀’로 컴백

할리우드 톱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슈트를 벗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닥터 두리틀’로 돌아온다.

영화 <닥터 두리틀>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2020년 대망의 컴백작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닥터 두리틀이 동물들과 함께 놀라운 여행을 떠나는 판타지 어드벤처 블록버스터. <닥터 두리틀>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아이언 맨 수트를 벗은 첫 스크린 컴백작이다.

‘닥터 두리틀’은 미국의 유명한 TV 시리즈이자 1998년 영화화됐던 작품이다. 우연히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된 두리틀 박사의 모험을 그리고 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새로운 도전이다.

내년 초 개봉 예정인 이 영화의 예고편에서는 “어떤 위험이 기다린 데도, 우린 이 여행을 떠날거야” 라는 닥터 두리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한 줄 대사만으로도 기대감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영상에서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닥터 두리틀과 다양한 동물들과의 새로운 우정, 놀라운 케미스트리, 압도적 스케일을 미리 엿볼 수 있다.

또한 안토니오 반데라스, 에마 톰슨, 라미 말렉, 톰 홀랜드 등 출연진의 면모도 화려하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사업가로 바뀐 인생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 어느 날 40대 중반의 여인이 필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 이 여인은 결혼 후에 자식 둘을 낳아서 기르면서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우고 자신의 일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 상담을 의뢰한 것이다. 타고난 사주(四柱)의 모양새를 보니 그래도 배우자의 덕(德)을 입을 수 있는 사주가 되고 또 대운(大運)의 운로가 아직은 배우자의 덕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운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 50세를 넘어서면서 배우자의 원만한 덕(德)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대운의 운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추천하기를 “그래도 타고난 그릇이 무엇인가 꾸미고 장식하는 분야로서 특수 기술성을 발휘하는 분야라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팔자가 됩니다. 이제라도 이.미용 분야 같은 곳에 인연하여 활동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타고난 그릇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므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추천을 드렸더니 이 부인이 “지금처럼 늦게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런 분야가 타고난 그릇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남들보다는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히 조언해 드린 것이다. 그 후에 그 분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찾아온 곳이다. 필자하고 상담을 한 후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나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작게 미용실을 차렸는데 지금은 예약이 밀려서 일이 바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종업원도 두고 손님 규모가 많아지게 되어서 조금 더 큰 가게로 옮기려고 하는데 필자보고 새로운 가게의 풍수적인 조건을 살펴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다. 필자가 새로운 가게가 옮겨갈 자리에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감정한 결과 그래도 이 분의 팔자와 잘 맞는 위치나 방향으로 가게가 들어서 있고 위치 자체가 풍수적으로도 부인하고 잘 맞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가정주부가 결국 자신이 타고난 팔자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